

보스 작품 '쾌락의 정원' 속 고문 도구는 왜 악기일까?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세계 영화 잡학사전 통조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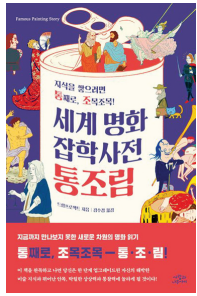
드림프로젝트 지음, 김수경 옮김

“소들은 딱 질색이다. 나는 마음이 맞는 여자들과 함께 살고 있다.” 이 글은 프랑스 화가 마리 로랑생 (1883~1956)의 자전적 에세이 ‘밤의 수첩’에 나오는 내용이다.

로랑생은 파블로 피카소, 조르주 브라크 등 입체주의 화가들과 활동하며 아방가르드 운동을 펼쳤다. ‘마드모 아젤 사넬 초상’, ‘아폴리네르와 친구들’ 등은 유려한 선과 이색적인 색감이 투영된 대표작이다.

로랑생은 왜 남자들을 소에 비유했을까. 남자와 관련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이 존재하는 모양이었다. 흥미롭게도 로랑생은 그림도 여자들만을 대상으로 그렸다.

그는 남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듯하다. 근본적인 원인은 복잡한 여자관계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첫 연인은 피카소가 소개한 시인인 기욤 아폴리네르였다. 그러나 로랑생은 얼마 후 결별을 선언하고 독일인 화가 오토 폰 베트엔 남작과 결혼을 한다. 예상과 달리 베트엔은 알코올 중독자인데다 빈털털



제기되는 것은 그의 삶속에 다양한 여성들이 등장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

일본 대표적 창작 마니아 집단 ‘드림프로젝트’가 펴낸 ‘세계 영화 잡학사전 통조림’은 영화에 관련된 흥미로운 서사를 담고 있다.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코드의 비밀과 불가사의’, ‘재미있는 결작 소설 70권’ 등 지금까지 선보인 책들은 기존의 평면적인 시각을 뛰어넘는다.

‘지식을 쌓으려면 통째로, 조목조목!’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영화에 대한 반대하면서도 다채로운 지식을 포괄한다. 일반적인 통찰을 넘는 상상력, 내용을 풀이하는 유연함은 영화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전복시킨다.

그림 속 인물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상징물을 ‘어트리뷰트’ (Attribute)라고 한다. 서양 미술에는 에트루루트가 자주 등장한다. 제우스의 독수리, 그의 부인 헤라 여신의 화려한 공작새, 지혜의 아테나 여신에게는 부엉이가 있다.

미의 대명사 비너스는 서양 영화의 단골 모델이다. 그리스·로마신화에서 미의 경쟁, 애정관계에서 패배를 수 없는 여신이다.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제목이 붙은 그림은 작품 속 인물이 비너스 여신임을 전제한다. 하지만 어떤 그림에는 제목이 없기도 하며 굳이 ‘비너스’를 밝히지

않는다.

이 때 그림의 인물이 비너스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에트리뷰트다. 16세기 활동했던 티치아노 베첼리오의 ‘우르비노의 비너스’에서 비너스는 오른손에 장미꽃을 쥐고 있다. 18세기 프랑스수아 부세의 ‘단장하는 비너스’에는 비너스 발 아래 장미가 놓여 있다.

15세기 네덜란드 화가 히로니무스 보스(1450~1516)는 북유럽 르네상스를 거론할 때 빠지지 않는다. 환상적인 상징성, 다층적인 서사구조가 그의 작품의 특징이다. ‘쾌락의 정원 세 폭 제단화’는 병풍식 제단화 형태로 제작된 작품이다. 왼쪽 패널은 천국이, 가운데 패널은 쾌락으로 만연한 지상 공원이, 마지막 오른쪽 패널은 지옥이 묘사돼 있다.

흥미로운 것은 지옥도에 그려진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장면들이다. 흔히 지옥 하면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보스의 지옥도에는 악마의 장갑에 찔리는 인간, 악기에 묶여 고문당하는 인간이 나온다. 그런데 왜 고문 도구가 악기일까. 중세시대 악기는 ‘사랑’과 ‘욕망’을 상징했다. 한다. 현재에서 쾌락을 탐닉한 이들이 그와 연관된 형벌을 받는다는 의미가 투영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밖에 책에서는 ‘다빈치는 왜 ‘최후의 만찬’ 주역으로 양고기 대신 ‘생선’을 그렸을까?’, ‘몽키는 왜 자기 작품 ‘생의 춤’ 모델에게 총격당했나?’, ‘모네는 왜 대중의 찬사를 받은 자기 작품 ‘일본 여인’을 졸작으로 깎아내렸을까?’, ‘시들해진 고갱의 장작육과 예술가의 열정을 되살려 낸 타히티 소년의 비밀은?’ 등 흥미로운 주제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사람과나무사이·2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중세시대 악기는 ‘사랑’과 ‘욕망’을 상징했는데 히로니무스 보스의 ‘쾌락의 정원 세 폭 제단화’ 가운데 지옥도에는 현재에서 쾌락을 탐닉한 인간들이 악기에 고문당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사람과나무사이〉

당신 곁의 아리아

백재은, 장일범 지음

‘한국의 카르멘’이라 불리는 메조소프라노 백재은과 재미있고 유쾌한 해설로 호평받는 음악평론가 장일범이 함께 엮은 대화집 ‘당신 곁의 아리아’가 출간됐다.

오페라의 대표적인 아리아 열여섯곡을 중심으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를 정리한 것으로, 클래식 애호가는 물론 오페라에 처음 입문하는 이들에게도 일상 속 예술 감상의 문을 열어주는 친절한 안내서다.

두 사람은 베르디의 ‘아이다’ 중 ‘정결한 아이다’, 비제의 ‘카르멘’ 중 ‘하바네라’, 푸치니의 ‘토스카’ 중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구노의 ‘파우스트’ 속 ‘정결한 집’ 등 시대와 지역을 대표하는 아리아를 선별해 소개한다. 작품의 배경과 작곡가의 의도, 가사 속 정서와 드라마적 전개까지 폭넓게 아우르며 독자들이 보다 입체적으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책은 단순한 해설서가 아니다. ‘오페라 무대 위 격정과 감동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아리아 속에 숨겨진 이야기와 작곡가의 의도는 무엇일까?’ 오페라를 둘러싼 문화와 역사, 인물과 에피소드를 통해 음악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흠뻑 빠져들 수 있도록 이끈다. 무엇보다 무대에서 직접 아리아를 소화해온 백재은의 경험담과 장일범 특유의 유쾌하고 재치 있는 해설이 어우러지며 기존 해설서와는 다른 생동감을 전한다. 대화 내용을 읽다보면 마치 공연 무대의 듀엣처럼 흥미진진하다.

현재 광주일보에 연재중인 ‘장일범의 극장 없이는 못살아’ 칼럼을 통해 다양한 공연 예술을 대중의 언어로 풀어내고 있는 장일범 평론가는 이번 책에서도 “오페라가 낯설게 느껴졌던 독자도 아리아 한 곡으로 무대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고 전한다.

〈그레도봄·1만98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AI행정혁명

김경진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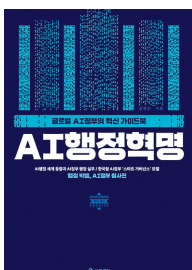
제도는 항상 현실보다 느리다. 불편과 민원이 누적돼야 겨우 한발짝 나아간다. ‘차라리 AI가 정부를 대신하면 좋지 않을까’ 터무니없는 상상처럼 여겨졌던 질문이 현실의 문턱을 넘고 있다.

김경진 변호사가 최근 펴낸 ‘AI행정혁명’은 그런 변화의 한 복판에서 한국 정부가 나아갈 길을 구체적으로 설계한 실무형 가이드북이다. 저자는 전 세계 16개국의 AI 행정 도입 사례를 바탕으로, AI 기술이 어떻게 정책 결정과 행정 서비스를 바꾸고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했다. 단순한 기술 소개서가 아니라, ‘관료제 이후의 행정’이라는 보다 본질적인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책은 AI가 단순히 효율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정부와 시민의 관계, 공공성의 개념, 국가의 운영 철학까지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차분히 짚는다. 예를 들어 미국의 AI 이니셔티브, EU의 인간 중심형 AI 법제, 싱가포르의 스마트 네이션 전략 등은 그 나라마다의 가치와 사회 구조에 따라 다르게 작동한다.

저자는 AI 행정이 단지 행정 자동화에 머물지 않고, 국민 개개인을 중심에 두는 방식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70대 독거노인에게서는 응급 예측 기반의 돌봄 서비스, 워킹맘에게는 육아와 업무를 연결하는 맞춤형 정책 알림, 대학생에게는 진로와 취업을 아우르는 진단 툴. 이러한 ‘맞춤형 행정’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주권, 알고리즘의 투명성, 윤리적 기준 같은 복잡한 과제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덧붙인다.

궁극적으로 ‘AI행정혁명’은 한국이 어떻게 ‘AI 정부’로 전환할 것인가를 묻는다. 저자는 이를 ‘5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세계 최대의 AI 행정 실험’이라 표현한다. 기술적 상상력과 행정적 실행력이 맞물려야 가능한 일이다.



〈인문공간·3만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장의 역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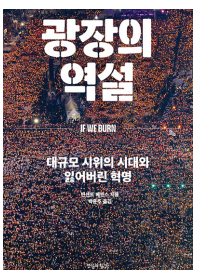
빈센트 베빈스 지음, 박윤주 옮김

광장의 열기는 찬란했지만, 그 빛이 비추던 세계는 과연 바뀌었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구속됐고, 정권교체를 이뤘다. 많은 이들이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과제는 여전히 있다. 12·3계엄사태 이후 드러난 우리 민주주의의 취약함, 정치적 갈등과 물로 갈라진 광장... ‘빛의 혁명’은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워싱턴포스트, 파이낸셜타임스 등에서 일하며 사회운동과 냉전사를 주로 취재해온 국제 전문기자 빈센트 베빈스가 최근 펴낸 ‘광장의 역설’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사회에 던져야 할 질문을 묵직하게 던진다. ‘아랍의 봄’과 브라질 대규모 시위, 홍콩의 황색운동, 칠레와 이집트, 그리고 한국의 촛불까지. 저자는 12개국 200여 명의 활동가와 정치인, 시위 참여자들을 인터뷰하며, 세계를 휩쓴 거대한 사회운동의 ‘이후’를 바라본다.

거리의 열기는 왜 그토록 쉽게 사그라졌는가? 왜 많은 시위가 도리어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는가? 저자는 “조직과 대표성을 거부한 수평주의가 시민의 열망을 실현하지 못하고 실패로 귀결됐다”고 진단한다. 특히 2013년 브라질 시위가 낳은 결과는 상징적이다. 버스요금 인상 반대를 시작으로 수백만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지만, 이후 권력 공백을 우파 정치세력이 채우며 오히려 사회는 퇴행했다. 2019년 홍콩, 2011년 이집트 등도 비슷한 전철을 밟았다.

책은 운동 내부의 문제를 성찰하지 않고서는 실패를 극복할 수도 없다는 냉철한 교훈을 던진다. 한국어판 서문에서 저자는 2016년 촛불 역시 “좁은 의미의 성공에 그쳤다”고 평가하며, 오늘 우리가 다시 ‘사회대개혁’을 말하고 있다면 촛불의 한계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진실의힘·2만70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받은 광고를 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매원 : (주)그린알로에